

모르그가의 살인

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41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04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Arthur Conan Doyle, "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

저자

아서 코난 도일 (Sir Arthur Conan Doyle, 1859–1930)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147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4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이렌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혹은 아킬레우스가 여인들 사이에 숨어 지낼 때 어떤 이름을 썼는지와 같은 문제들은 비록 수수께끼 같긴 하나, 결코 추측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은 아니다.

—토머스 브라운 경.

분석적이라고 일컫는 정신적 특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오직 그 특성이 나타내는 결과만을 보고 이를 가늠할 뿐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이러한 능력을 과도하게 갖춘 이들에게 분석적 사고는 언제나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는 점이다. 긴장한 사내가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뽐내며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에서 희열을 느끼듯, 분석가는 복잡하게 얽힌 것을 '풀어내는' 정신적 활동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낸다. 수수께끼나 난제, 상형문자 같은 것들을 유난히 좋아하기도 한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마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능력이 마치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다. 철저한 방법론의 정수를 통해 도출해낸 그의 결과물은, 사실 언뜻 보기에 직관에 의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수학적 연구, 특히 역방향의 연산 과정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석(analysis)'이라는 이름이 붙은 수학의 최고 학문은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강화해 준다. 하지만 단순히 계산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분석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체스 기사는 계산을 하면서도 분

석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체스가 정신적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가 존재한다.

나는 지금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소 기이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생각을 두서없이 적어 내려가려는 것뿐이다. 그러니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성찰적 지성의 고등 능력을 더욱 확실하고 유용하게 단련하는 것은, 화려하고 복잡한 체스가 아니라 길보기에 소박한 게임인 '드래프트(draughts, 서양식 체커)'다.

체스는 기물마다 움직임이 다르고 기괴하며, 그 가치 또한 다양하고 가변적이다. 그래서 체스에서는 단순히 '복잡한 것'을 '심오한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체스에서는 '주의력'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단 한 순간이라도 주의력이 흐트러지면 실수가 발생하고, 이는 곧 손해나 패배로 이어진다. 가능한 수의 조합이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수의 가능성 또한 배가된다. 따라서 열에 아홉은 날카로운 직관을 가진 사람보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승리한다.

반면 드래프트는 움직임이 단조롭고 변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부주의로 인한 실수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단순히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느냐에 따라 갈린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자. 드래프트 게임에서 기물이 단 네 개의 킹으로 줄어들어, 더 이상 단순한 실수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두 선수의 실력이 대등할

때) 승부는 오직 지적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어떤 '정교한 수'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다. 일반적인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분석가는 상대방의 심리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을 상대와 동일시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유인해 실수를 유도하거나 계산을 서두르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때로는 황당할 정도로 단순한 방법—을 단번에 꿰뚫어 보게 된다.

휘스트(Whist) 게임이 이른바 '계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지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이들은 체스를 가벼운 유희라며 멀리하면서도, 휘스트에는 겉보기에 설명하기 힘든 즐거움을 느끼곤 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분석 능력을 이토록 혹독하게 시험하는 게임은 휘스트 외에 없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체스 기사라 할지라도 그저 체스를 잘하는 사람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휘스트에 능숙하다는 것은, 지략과 지략이 맞붙는 더 중요한 모든 승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능숙함이란, 정당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모든 원천을 완벽히 이해하고 게임을 운용하는 경지를 뜻한다. 이러한 원천들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형태도 천차만별이며, 대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사고의 심연 속에 숨겨져 있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자는 명확하게 기억하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집중력이 좋은 체스 기사라면 휘스트에서도 꽤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의 기본 규칙인 호일의 법칙(Hoyle's rules)은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력이 좋고 '교본대로'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보통은 훌륭한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그

러나 분석가의 진정한 기량은 단순한 규칙의 범위를 넘어설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는 침묵 속에서 수많은 관찰과 추론을 이어간다. 아마 그의 상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얻어내는 정보의 양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추론의 타당성보다는 관찰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식이 필수적이다.

능숙한 플레이어는 결코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다.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해서 게임 외부의 요소로부터 얻은 결론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그는 파트너의 안색을 살피며 상대방 개개인의 표정과 세밀하게 비교한다. 또한 각자가 카드를 정리하는 방식도 유심히 살핀다. 상대가 카드를 훑어보는 눈길을 통해, 트럼프 카드가 몇 장인지, 그리고 주요 카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세어 나가기도 한다.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얼굴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다. 확신, 놀람, 승리감, 혹은 분함과 같은 표정의 차이에서 얻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둔다. 트릭을 거두어들이는 방식만 보고도, 그 카드를 가져간 사람이 해당 수트에서 다음 트릭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판단한다. 카드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태도를 보고, 상대가 속임수를 쓰기 위해 던진 카드인지도 알아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실수로 카드를 떨어뜨리거나 뒤집는 동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안함이나 부주의함까지도 그에게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트릭을 세는 방식이나 카드를 배열하는 순서, 당혹감, 망설임, 조급함 혹은 두려움 같은 모든 요소가 그의 직관적인 통찰력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 대략 두세 차례의 라운드가 지나고 나면, 그는 이미 모든 플레이어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완벽하게 파악한다. 그 이후부터 그는 마치 상대방들이 카드의 앞면을 모두 드러내 놓은 것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카드를 내려놓는다.

분석력은 단순히 뛰어난 기지(機智)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분석가는 필연적으로 기지가 넘치는 사람이지만, 기지가 넘치는 사람이 반드시 분석에 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기지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결합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곤 한다. 골상학자들은 이 능력을 원초적인 기능이라 가정하며 별도의 기관에 배정하기도 했으나(내 생각에 그것은 오류다), 이 결합 능력은 지적 능력이 거의 백치에 가까운 이들에게서도 자주 발견되곤 한다. 이 때문에 도덕론을 다루는 저술가들 사이에서도 이는 일반적인 관찰 대상이 되었다.

기지와 분석 능력 사이에는 상상력과 공상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격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성격은 매우 유사하다. 사실 기지가 넘치는 사람은 언제나 공상가이지만, 진정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결코 분석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방금 언급한 명제들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해설처럼 읽힐 것이다.

18—년의 봄부터 여름의 일부까지 파리에 머물던 시절, 나는 그곳에서 C. 오귀스트 뒤팡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다. 이 젊은 신사는 본래 아주 훌륭하고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이었다. 하지만 여러 불운한 사건이 겹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결국 그 강인했던 성격마저 가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꺾이고 말았다. 그는 세상사에 뜻을 잃었으며,

다시 재산을 모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다행히 채권자들이 배려해 준 덕분에 그에게는 물려받은 유산의 아주 작은 일부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유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바탕으로 매우 검소하게 생활하며, 사치 없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충당하며 지냈다. 그가 누리는 유일한 사치는 책을 읽는 것이었는데, 파리라면 책을 구하는 일쯤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몽마르뜨르가의 어느 이름 모를 도서관이었다. 아주 희귀하고도 놀라운 책 한 권을 우리 둘 다 찾고 있었는데, 그 우연한 만남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급격히 가까워졌다. 그 후로도 우리는 몇 번이고 다시 만났다. 그는 프랑스인 특유의 솔직함으로 자신의 가족사를 상세히 들려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또한 그의 방대한 독서량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거침없는 열정과 생생하고 신선한 상상력은 내 영혼에 불을 지피는 듯했다. 당시 파리에서 내가 찾던 것들을 고려할 때, 그와 교류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도 같으리라 느꼈고, 나는 이 마음을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결국 내가 파리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함께 지내기로 했다. 내 경제적 형편이 그의 처지보다 조금 더 나았기에, 내가 집을 빌리고 가구를 들여놓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우리는 생제르맹 교외의 한적하고 황량한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저택을 거처로 삼았다. 그 집은 미신 때문에 오랫동안 비어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고, 기괴하고도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그 기묘한 어둠은 오히려 우리의 괴팍한 성미와도 잘 어울렸다.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보내는 일상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마도 해를 끼치지 않는 온순한 미치광이 정도로 여기겠지만 말이다. 우리의 은둔은 완벽했다. 우리는 그 누구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은둔하고 있는 장소는 나의 옛 동료들에게조차 철저히 비밀로 부쳐져 있었다. 뒤펅이 파리에 서 인맥을 끊고 세상과 단절된 지도 이미 수년이 흐른 뒤였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존재했다.

내 친구에게는 밤 그 자체를 사랑하는 기묘한 취향이 있었다. 이를 달리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나는 그의 이런 기이한 습성—그의 다른 모든 기벽과 마찬가지로—에 조용히 동조하며, 그의 거침없는 변덕에 온전히 몸을 맡기곤 했다. 밤이라는 검은 신은 우리와 늘 함께 머물러 주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흉내라도 낼 수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 우리는 낡은 건물의 지저분한 덧창을 모두 닫았다. 그리고는 향이 강한 양초 몇 개를 켜는데, 그 양초는 아주 희미하고도 섬뜩한 빛만을 내뿜었다. 우리는 그 빛에 의지해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고, 혹은 대화를 나누며 꿈결 같은 사색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시계가 진짜 어둠이 찾아왔음을 알리면, 우리는 팔짱을 낀 채 거리로 나섰다. 낮에 나누던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이곳저곳을 헤매기도 했다. 인구로 북적이는 도시의 거친 빛과 그림자 사이를 거닐며, 우리는 정적인 관찰이 선사하는 무한한 지적 자극을 찾아 나섰다.

그럴 때면 나는 뒤편이 지닌 독특한 분석 능력을 감탄하며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풍부한 상상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말이다. 그는 그 능력을 남에게 과시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으나,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 자체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는 듯 보였다. 또한 그는 분석을 통해 얻는 그 쾌감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낮은 웃음을 흘리며 나에게 호기롭게 말했다. 자신이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가슴에 창문이 달려 있어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말이다. 그러고는 곧바로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내면의 모습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짚어내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곤 했다.

이런 순간의 뒤편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멍해졌고, 평소의 풍성한 테너 음색은 날카로운 고음으로 변했다. 만약 그가 말을 아주 신중하고 또렷하게 내뱉지 않았다더라면, 마치 짜증을 내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의 이런 기묘한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종종 영혼이 둘로 나뉜다는 고대 철학을 깊이 되새기곤 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는 뒤편이라는 인물을 두 명으로 나누어 상상해 보았다. 하나는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뒤편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풀어내는 뒤편이라는 상상 말이다.

방금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무슨 미스터리 사건을 상세히 늘어놓거나 로맨스 소설을 쓰고 있다고 오해하지는 말길 바란다. 내가 그 프랑스인에 대해 묘사한 것은 그저 흥분 상태에 있거나, 어쩌면 정신적으

로 병든 지성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하지만 그가 당시 했던 말들을 예로 들어본다면, 그가 어떤 성격의 인물이었는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밤, 우리는 팔레 루아얄 인근의 길고 지저분한 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우리 둘 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지, 적어도 15분 동안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뒤펅이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넸다.

“그가 아주 왜소한 체구라는 건 사실입니다. 차라리 ‘테아트르 데 바리에테’ 같은 곳에 나가는 게 더 어울릴 법하군요.”

“그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나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느라, 상대방이 내 사색의 흐름에 이토록 기묘한 방식으로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탓이었다. 곧 정신을 차린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경악에 휩싸였다.

“뒤펅,” 나는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 내 눈과 귀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네. 대체 내가 ——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나는 말을 멈추고 그가 정말로 내가 누구를 떠올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 샹티이의,” 그가 말했다. “왜 말을 멈추시나? 그가 너무 왜소한 체구라 비극적인 역할을 맡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내가 깊이 고민하던 지점이었다. 샹티이는 생드니가의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연극에 미치고 나서 크레비용의 비극인 〈크세르크세스〉에서 주인공 역을 맡으려 시도했다가 그 무모한 도전 때문에 온갖 조롱을 받으며 희대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인물이었다.

“제발 부탁이니 말 좀 해보게.” 나는 외쳤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만약 그런 방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 일에 관한 내 속마음을 이토록 꿰뚫어 본 건가?” 사실 나는 겉으로 드러낸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놀란 상태였다.

“구두 밑창 수선공의 키가 크세르크세스 대왕 같은 인물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건, 바로 그 과일 장수 때문이었나 보군.” 친구가 대답했다.

“과일 장수라니요! 정말 놀랍군요. 저는 그 어떤 과일 장수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리에 들어섰을 때 당신과 부딪혔던 그 사람 말입니다. 아마 15분 전쯤이었을 겁니다.”

문득 생각난 일이 있었다. C——가에서 우리가 서 있는 대로를 향해 길을 건널 때, 머리에 커다란 사과 바구니를 이고 가던 과일 장수가 실

수로 나를 칠 뻔하며 넘어뜨릴 뻔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일이 샹티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뒤팡에게서는 조금의 허풍도 느껴지지 않았다. "설명해 드리지요." 그가 말했다.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선 당신이 생각에 잠겼던 과정을 되짚어 봅시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건 순간부터 문제의 과일 장수와 마주치기까지의 과정 말입니다. 생각의 고리를 굽직하게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샹티, 오리온, 니콜스 박사, 에피쿠로스, 입체 절단법, 길바닥의 돌, 그리고 과일 장수 순으로 말이죠."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즐거움에 빠지곤 한다. 이 과정은 대개 무척 흥미롭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 시도를 해보는 사람은 당혹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출발점과 목적지 사이에 놓인 거리가 끝도 없이 멀어 보이고, 그 사이의 연결 고리 또한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프랑스인이 방금 내뱉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느꼈던 경악은 얼마나 컸겠는가. 게다가 그의 말이 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말이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제 기억이 맞다면, C—가에서 떠나기 직전까지 우리는 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지요. 이 거리로 들어섰을 때, 머리에 커다란 바구니를 이고 있던 과일 장수가 우리 곁을 급히 지나가다 당신을 밀쳤습니다. 그 바람에 당신은 보도 수리 작업 때문에 한곳에 쌓아둔 보도블록 더미 쪽으로 밀려났지요.

당신은 험거워진 돌 조각 하나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약간 삐끗했습니다. 당신은 짜증이 났는지 혹은 기분이 상했는지, 무언가 중얼거리며 쌓인 돌더미를 한 번 돌아보더니 다시 아무 말 없이 길을 갔습니다. 사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특별히 주의 깊게 지켜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래 들어 관찰하는 것이 제게는 일종의 본능처럼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당신은 땅만 바라보며 걷고 있었지요. 보도에 패인 구멍이나 바퀴 자국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훑어보는 모습에서, 당신이 여전히 돌덩이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실험 삼아 겹쳐서 리벳으로 고정된 블록을 갈아둔 라마르틴 골목에 이르렀을 때, 당신의 안색이 밝아지더군요. 입술이 달짝이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이 ‘스테레오토미(stereotomy, 입체 절단법)’라는 단어를 중얼거렸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방식의 포장 도로를 두고 아주 격식 있게 사용하는 용어지요.

나는 당신이 ‘스테레오토미’라는 말을 떠올리면 자연히 ‘아토미(atomies, 미립자)’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 에피쿠로스의 이론까지 미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고결한 그리스 철학자의 막연한 추측이 최근의 성운 우주론에서 얼마나 기묘하면서도 무심하게 증명되었는지 내가 말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이 오리온자리에 있는 거대한 성운을 향해 시선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더군요. 그 순간 나는 내가 당신의 사고 과정을 정확히 따라왔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 ‘뮝제(Musée)’지에 실린 샹티이(Chantilly)에 대한 통렬한 비판 기사를 보셨습니까? 그 풍자가는 비극 배우가 되면서 이름을 바꾼 구두 수선공을 조롱하며 수치스러운 암시를 던지더니,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라틴어 구절을 인용하더군요. 내가 말하려는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글자가 옛 소리를 잃었다.

“내가 이 이야기가 예전에 ‘유리온’이라고 쓰였던 ‘오리온’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었지요. 그 설명에 덧붙인 몇 가지 날카로운 암시 때문에, 당신이 그 내용을 잊었을 리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리온과 샹티이, 이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해낼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이었지요. 당신의 입가에 스친 미소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엾은 구두 수선공이 겪은 희생을 떠올린 것이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은 구부정한 자세로 걸고 있었지만, 이내 몸을 곧게 펴며 키를 높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당신이 샹티이의 왜소한 체구를 떠올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명상을 방해하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사실 샹티이라는 친구는 아주 작은 몸집을 가졌으니, ‘테아트르 데 바리에테’ 무대에 서는 게 더 어울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가제트 데 트리뷴」의 저녁판을 훑어 보고 있었다. 그러다 다음의 기사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이한 살인 사건>—오늘 새벽 3시경, 생로크 구역의 주민들은 연이어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비명은 모르그가에 있는 어느 집 4층에서 들려왔는데, 그 집에는 레스파네 부인과 그녀의 딸 카미유 레스파네 양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주민들이 평소처럼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한동안 소동이 이어졌다. 결국 지렛대를 이용해 입구를 부수고 들어갔으며, 두 명의 헌병과 함께 여덟 명에서 열 명 정도의 이웃이 집 안으로 진입했다.

그사이 비명은 멎어 있었다. 하지만 일행이 첫 번째 계단을 뛰어 올라갈 때, 집 위쪽에서 거칠고 험악한 목소리들이 서로 다투는 듯한 소리가 두어 명 이상에게서 들려왔다. 그러나 두 번째 계단참에 다다르자 그 소리마저 사라졌고, 집 안은 다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일행은 흩어져 방마다 급히 뒤지기 시작했다. 4층에 있는 커다란 뒷방에 도착했을 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열쇠도 안에 들어 있었다. 결국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간 일행은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공포인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경악스러운 모습이었다.

방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가구들은 부서진 채 사방으로 내뿜 개쳐져 있었다. 침대는 단 하나뿐이었는데, 침대 틀에서 매트리스를 빼내 바닥 한가운데로 던져놓은 상태였다. 의자 위에는 피가 묻은 면도날이 놓여 있었다. 벽난로 근처에는 피가 묻은 길고 굵은 회색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흩어져 있었는데, 마치 뿌리째 뽑힌 것처럼 보였다.

바닥에는 나폴레옹 금화 네 개와 토파즈 귀걸이 하나, 커다란 은손가락 세 개,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알제 금속제 손가락 세 개가 떨어져 있었다. 또한 금화 4,000프랑 가까이 들어 있는 가방 두 개도 발견되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서랍장에는 서랍들이 열려 있었는데, 물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매트리스 아래(침대 틀 아래가 아니다)에서는 작은 철제 금고 하나가 발견되었다. 금고는 열려 있었고 열쇠는 그대로 꽂혀 있었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과 별 볼 일 없는 서류들뿐이었다.

레스파네 부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벽난로 안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그을음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굴뚝 안을 수색했다.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도!)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 딸의 시신이 굴뚝에서 끌려 나왔다. 시신은 좁은 통로를 따라 꽤 깊숙한 곳까지 밀려 올라가 있었다.

시신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시신을 조사해 보니 곳곳에 살점이 벗겨진 상처가 많았는데, 이는 시신을 굴뚝 안으로 밀어 넣고 다시 꺼내는 과정에서 가해진 격렬한 힘 때문에 생긴 것이 분명했다. 얼굴에는 깊은 굵은 상처가 가득했고, 목에는 검푸른 멍과 함께 손톱에 눌린 듯한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고인을 목 졸라 죽인 것 같았다.

조사단은 집안 구석구석을 철저히 뒤졌으나 더 이상의 단서는 찾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 돌바닥 마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에는 노부인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목이 너무 깊게 베인

나머지, 시신을 들어 올리려 하자 머리가 그대로 떨어져 나갈 정도였다. 시신과 머리 모두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특히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짓이겨져 있었다.

“우리가 믿기로는, 이 끔찍한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아직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날 발행된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상세한 내용이 추가로 실려 있었다.

「모르그가의 비극」. 이 기괴하고도 끔찍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이 조사를 받았다. [프랑스에서 '아페르(affaire)'라는 단어는 아직 우리처럼 가볍게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만한 단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증언을 아래에 기록한다.

세탁부 폴린 뒤부르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두 사람의 빨래를 맡아오며 그들을 알고 지냈다고 한다. 노부인과 그녀의 딸은 사이가 매우 좋아 보였으며, 서로를 무척 아끼는 듯했다. 임금도 아주 제때 잘 지급되었다. 다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녀는 레스파네 부인이 점술로 생계를 꾸린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부인이 돈을 따로 모아두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빨래를 찾으러 가거나 집으로 가져갈 때, 집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고용한 하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건물 내에서는 4층을 제외하면 가구라고 부를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담배 가게 주인 피에르 모로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지난 4년 동안 레스파네 부인에게 소량의 담배와 코담배를 팔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 근처에서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사망한 부인과 그녀의 딸은 시신이 발견된 그 집에서 6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한 보석상이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당시 그는 위층 방들을 여러 사람에게 전대해주곤 했습니다. 그 집은 레스파네 부인의 소유였습니다. 부인은 세입자들이 건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직접 그 집으로 이사해 들어왔으며 더 이상 방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노부인은 다소 아이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지난 6년 동안 딸을 대여섯 번 정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은둔하며 살았고, 돈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레스파네 부인이 점을 친다는 말도 돌았으나, 증인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보기에 그 집 문을 드나든 사람은 노부인과 딸, 한두 번 들른 문지기, 그리고 여덟에서 열 번 정도 방문한 의사뿐이었습니다.

"이웃을 포함한 다른 많은 사람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레스파네 부인과 그녀의 딸에게 친척이 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앞창문의 덧창은 좀처럼 열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뒷창문들은 항상 닫혀 있었는데, 4층에 있는 커다란 뒷방 하나만 예외였습니다. 집은 꽤 괜찮은 건물이었고, 그리 오래된 편도 아니었습니다."

"경찰관 이지도르 뮈제는 새벽 3시경 현장으로 호출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착했을 당시 대문 앞에는 20~3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안으로 들어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렛대가 아닌 총검을 사용

해 마침내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문이 안팎으로 접히는 형태인 데다 샅단과 하단에 걸쇠가 따로 없어서 문을 여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비명 소리는 문을 강제로 열 때까지 계속되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멎었습니다. 비명은 짧고 급박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내지르는 듯 길게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증인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계단참에 다다랐을 때, 크고 격앙된 목소리로 다투는 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거친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매우 날카롭고 기이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친 목소리는 프랑스인의 것이었으며, 몇몇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가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사크레(sacré)'와 '디아블(diable)' 같은 단어가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날카로운 목소리는 외국인의 것이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방 안의 상태와 시신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이웃이자 은세공사인 앙리 뒤발은 자신이 처음으로 집에 들어간 일행 중 한 명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묘제의 증언이 대체로 사실임을 뒷받침했다. 뒤발에 따르면, 일행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즉시 문을 다시 닫았다고 한다.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기에, 인파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 목격자는 들렸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탈리아인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랑스인의 목소리는 확실히 아니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여자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뒤발은 이탈리아어를 알지 못해 구체적인 단어는 구별할 수 없었으나, 말투와 억

양만으로도 말하는 이가 이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는 레스파네 부인과 그녀의 딸을 알고 있었으며, 두 사람과 자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인이 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펜하이머, 식당 경영자. 이 증인은 자진해서 증언에 나섰다. 프랑스어를 못 해서 통역사를 통해 신문을 받았다. 암스테르담 출신이다. 비명이 들리던 당시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비명은 몇 분 동안, 아마도 10분 정도 지속되었다. 비명은 길고 컸으며, 매우 끔찍하고 괴로웠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 한 명이다. 한 가지 사항을 제외하면 앞선 증언 내용과 모든 면에서 일치했다.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남자의 것이었으며, 프랑스인이었다고 확신했다.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말은 크고 빨랐으며 불규칙했다. 분노뿐만 아니라 공포에 질린 듯한 말투였다. 목소리는 날카롭다기보다 거칠었다. 단순히 날카로운 목소리라고만 부를 수는 없었다. 그 거친 목소리는 ‘사크레(sacré)’, ‘디아블(diable)’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내뱉었으며, 한 번은 ‘몽 디외(mon Dieu)’라고도 했다.”

텔로렌가의 미노 에 피스 은행 소속, 은행가 쥘 미노. 그는 미노 부자(父子) 중 아버지다. 레스파네 부인은 재산이 좀 있었다. 8년 전 봄, 미노의 은행에 계좌를 하나 개설했다. 부인은 소액을 자주 입금했다. 죽기 사흘 전까지는 돈을 인출한 적이 없었으나, 그날 부인이 직접 찾아와 4,000프랑을 찾아갔다. 이 금액은 금화로 지급되었고, 은행원이 그 돈을 들고 부인의 집까지 동행했다.

“미뇨와 아들 회사의 사무원 아돌프 르봉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정오 무렵 그는 4,000프랑이 든 두 개의 가방을 들고 레스파네 부인의 자택까지 동행했다. 문이 열리자 카미유 레스파네 양이 나타나 그의 손에서 가방 하나를 받아 들었고, 노부인은 나머지 가방 하나를 건네받았다. 그 후 르봉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당시 거리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골목이다.”

“재단사 윌리엄 버드는 자신도 집에 들어간 일행 중 한 명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영국인이며 파리에서 2년 동안 거주했다. 계단을 가장 먼저 올라간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다투는 목소리를 들었다. 거친 목소리는 프랑스인이었다. 몇 마디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 ‘사크레(sacré)’와 ‘몽 뒤(mon Dieu)’라는 말은 분명히 들었다. 그 순간 여러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듯한 소리가 났다. 무언가 굵히고 발을 구르는 소리였다. 날카로운 목소리는 매우 컸으며, 거친 목소리보다 더 컸다. 그 목소리가 영국인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독일인 같았다. 여자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다. 독일어를 알아듣지는 못한다.”

“앞서 언급된 증인 중 네 명을 다시 소환하여 심문한 결과, 카미유 레스파네 양의 시신이 발견된 방의 문은 일행이 도착했을 당시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현장은 완벽하게 정적에 싸여 있었으며, 신음 소리나 그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도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앞방과 뒷방의 창문은 모두 내려져 있었고,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두 방 사이의 문은 닫혀 있었으나 잠겨 있지는 않았다. 앞방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문은 안쪽에 열쇠가 꽂

힌 채 잠겨 있었다. 4층 복도 어귀, 집 앞쪽에 위치한 작은 방은 문이 약간 열린 채로 놓여 있었다. 그 방에는 낡은 침대와 상자 등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이를 조심스럽게 치워가며 살살이 수색했다. 집 안의 그 어느 곳도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굴뚝 안쪽까지 빗자루를 넣어 훑으며 확인했다. 이 집은 다락방이 있는 4층 건물이었다. 지붕에 있는 트랩도어는 아주 단단히 못 박혀 있었는데, 수년 동안 열린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다툼 소리를 들은 시점부터 방 문을 부수고 들어간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에 대해서는 증인마다 진술이 엇갈렸다. 어떤 이는 3분 정도로 짧게 말했고, 어떤 이는 5분 정도로 길게 말하기도 했다. 문은 매우 어렵게 열렸다.”

“장례업자 알폰소 가르시오는 모르그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스페인 태생이다. 집 안으로 들어갔던 일행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위층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다. 그는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라, 흥분하면 그로 인해 닥쳐올 결과를 염려했다. 그는 다툼의 목소리들을 들었다. 거친 목소리는 프랑스인이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날카로운 목소리는 영국인이었다. 그는 이 점을 확신한다. 영어를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억양만으로 판단한 것이다.”

제과업자인 알베르토 몬타니는 자신이 계단을 올라간 첫 번째 사람들 중 하나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문제의 목소리들을 들었다. 거친 목소리는 프랑스인이었다. 그는 몇몇 단어를 알아들었다. 말하는 이는 무언가 항의하는 듯한 기색이었다. 날카로운 목소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빠르고 불규칙하게 이어졌다. 몬타니는 그 목소리가 러시아인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른 증언들

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 그는 이탈리아인이며, 러시아 태생의 사람과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러 증인이 여기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4층에 있는 모든 방의 굴뚝은 사람이 통과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좁았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청소 도구'란 굴뚝 청소부들이 사용하는 원통형 솔을 의미합니다. 이 솔들은 집 안의 모든 연도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며 청소되었습니다. 또한, 일행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누군가 몰래 내려올 수 있는 뒷통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카미유 레스파네 양의 시신은 굴뚝에 너무나 단단히 끼어 있어서, 네다섯 명의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 겨우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의사 폴 뒤마는 동틀 무렵 시신을 확인하러 불러 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두 시신은 카미유 레스파네 양이 발견된 방 안, 침대 밑에 깔린 삼베 자루 위에 놓여 있었다. 짧은 여성의 시신은 온통 멍이 들고 살점이 벗겨져 있었다. 시신이 굴뚝 안으로 밀어 넣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외상은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목 부위는 심하게 찢려 있었고, 턱 바로 아래에는 몇 군데 깊은 굵힌 상처와 함께 손가락 자국으로 보이는 검푸른 반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변색되었으며 안구는 돌출되어 있었다. 혀는 부분적으로 깨물려 잘려 나간 상태였다. 멍치 부위에서는 무릎으로 압박했을 때 생기는 듯한 커다란 멍이 발견되었다. 뒤마의 소견에 따르면, 카미유 레스파네 양은 정체불명의 인물 혹은 인물들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시신은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오른쪽 다리와 팔의 뼈는 거의 모두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왼쪽 정강이뼈와 왼쪽 갈비뼈 전체도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 온몸은 끔찍할 정도로 멍이 들고 변색된 상태였다.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처를 입혔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만약 아주 힘이 센 사람이 휘둘렀다면, 무거운 나무 몽둥이나 넓직한 철제 막대, 혹은 의자와 같이 크고 무거우며 끝이 뾰족한 무기라면 무엇이든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여성도 무기를 사용해 이런 타격을 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목격자가 보았을 때 사망자의 머리는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며, 그 자체로도 심하게 으스러져 있었다. 목 부위는 매우 날카로운 도구, 아마도 면도날 같은 것으로 베인 것이 분명해 보였다.”

외과 의사인 알렉상드르 에티엔이 뒤마 씨와 함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호출되었다. 그는 뒤마 씨의 의견과 증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몇 명의 인물을 더 조사하기는 했으나, 그 이상의 중요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토록 기이하고 모든 정황이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은 파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설령 이것이 정말 살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경찰은 완전히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었는데,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단서조차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발행된 신문은 생로크 구역의 소동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집을 샅샅이 다시 수색하고 목격자들

을 새로 조사했지만, 모두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추신에는 아돌프 르봉이 체포되어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이미 상세히 보도된 사실 외에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증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

뒤팽은 이 사건의 경과에 유독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그가 별 다른 말을 남기지는 않았기에 내 짐작일 뿐이지만, 그의 태도만은 분명 그렇게 보였다. 르봉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내게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파리 시민 모두가 그러하듯, 나 역시 이 사건을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범인을 추적할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겉핥기식 수사만 보고 수사 방식을 판단해서는 안 되네.” 뒤팽이 말했다. “파리 경찰은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칭송받지만, 사실 교활할 뿐 그 이상은 아니야. 그들의 수사 방식에는 체계가 없네. 그저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춘 임기응변뿐이지. 온갖 조치를 대대적으로 벌이긴 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마치 음악을 더 잘 듣겠다고 가운(robe-de-chambre)을 가져오라던 조르댕 씨(Monsieur Jourdain)의 꼴이지. 그들이 거둔 결과가 가끔 놀라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저 성실하게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이라네. 그런 자질이 통하지 않으면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지.

예를 들어 비도크는 직관이 뛰어나고 끈기 있는 사람이었네. 하지만 체계적인 사고가 없었기에, 오히려 지나치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바람

에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지. 대상을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바람에 시야를 흐린 셈이야. 한두 가지 지점은 남들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는 동안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은 놓칠 수밖에 없었네. 이처럼 지나치게 깊이 파고드는 것도 문제라네. 진실이 언제나 우물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더 중요한 지식에 관해서라면, 진실은 언제나 표면에 머물러 있다고 나는 믿네. 우리가 진실을 찾는 골짜기는 깊을지 몰라도, 진실이 놓여 있는 산봉우리는 높고 얇은 법이지.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방식은 천체를 관찰할 때 아주 잘 나타난다네. 별을 겹눈질로 보는 경우를 생각해보게. 망막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를 이용해 별을 겹눈질로 바라보면, 별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고 그 광채도 가장 잘 느껴진다네. 하지만 별을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하면, 그 광채는 오히려 희미해지고 말지. 정면으로 볼 때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더 많지만, 겹눈질로 볼 때가 오히려 더 섬세하게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네. 지나치게 깊이 파고들면 사고는 혼란에 빠지고 약해지기 마련이야. 너무 오랫동안, 너무 집중해서, 혹은 너무 정면으로만 들여다보려 한다면 금성조차 밤하늘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네.”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직접 조사를 좀 해봅시다. 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꽤 흥미로운 유흥이 될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 ‘유흥’이라니, 참 묘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예전에 르봉이 내게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어서 고마운 마음도 있거든요. 현장에 직접 가서 눈

으로 확인해 봅시다. 경찰청장인 G 씨와는 아는 사이니, 필요한 허가를 받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허락을 얻자마자 우리는 곧장 모르그가로 향했다. 그곳은 리솔리와 가와 생로크가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저분하고 초라한 거리 중 하나였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 구역까지는 거리가 꽤 멀었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다. 집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길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도 없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굳게 닫힌 덧창을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은 전형적인 파리의 주택이었다. 한쪽에는 출입문이 있었고, 그 옆에는 유리로 된 경비실이 붙어 있었다. 창문에 미닫이문이 달린 것으로 보아 경비원이 상주하는 곳임이 분명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 거리를 따라 걷다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다. 다시 한번 길을 꺾자 건물 뒷편에 다다랐다. 그동안 뒤땡은 건물은 물론 주변 일대까지 아주 세밀하게 살피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찾으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집요한 시선이었다.

우리는 왔던 길을 되짚어 다시 그 집 앞으로 향했다. 벨을 누르고 신분을 밝히자, 당직 중이던 요원들이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 카미유 레스파네 양의 시신이 발견된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두 희생자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방 안의 어지러운 상태는 평소처럼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내가 본 것은 「가제트 데 트리뷴」에 보도된 내용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뒤땡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포함해 모든 것을 샅샅이 살폈다. 그 후 우리는 헌병 한 명을 동행하여 다른 방들과 마당까지 둘러보았다. 조사는 어둑해

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우리는 그제야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행한 뒤편은 잠시 들러 일간지 편집국 중 한 곳에 방문했다.

내 친구의 변덕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앞서 말한 바 있다. 그는 마치 '그것들을 잘 다루며 조절하듯(Je les ménageais)' 행동하곤 했는데, 이 표현은 영어로 딱 잘라 옮기기 어려운 뉘앙스를 담고 있다. 그날 그의 기분은 유독 묘했다. 다음 날 정오가 다 되기 전까지는 살인 사건에 관한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내게 물었다. 그 끔찍한 사건 현장에서 혹시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게 없느냐고 말이다.

그가 '기이하다'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해 말할 때, 그 태도에는 무언가 있었다. 나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몸서리가 치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요, 딱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적어도 우리 둘 다 신문에서 읽은 내용 말고는 더 볼 게 없었죠.”

“가제트 데 트리뷰노를 보니,” 그가 대답했다. “이 사건이 지닌 기괴한 공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 같군. 하지만 신문사의 근거 없는 추측은 무시하게나. 내가 보기엔 이 수수께끼가 해결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해결하기 아주 쉬운 이유가 되고 있네. 바로 사건의 양상이 너무나 기이하다는 점 때문이지.

경찰은 범행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네. 살인 그 자체에 대한 동기가 아니라, 이토록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이유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지. 또한 그들은 목격된 다툼 소리와 실제 현장 사이의 모순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네. 위층에서는 살해된 카미유 레스파네 양 외에는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고, 올라가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빠져나갈 방법도 없었으니까 말일세.

방 안의 무질서한 상태,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 굴뚝 속으로 처박힌 시신, 그리고 노부인의 처참하게 훼손된 사체까지. 앞서 말한 점들과 다른 여러 정황은 정부 요원들이 자랑하던 그 예리한 통찰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결국 그들을 마비시키고 말았네. 그들은 '특이한 것'과 '난해한 것'을 혼동하는, 혼하면서도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셈이지.

하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이성의 과정은, 오히려 평범한 범주에서 벗어난 지점들을 짚어 나갈 때 비로소 길을 찾게 되는 법이라네.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이런 수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기보다, '이전에 일어난 적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물어야 하네. 사실, 내가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얼마나 쉽게 찾아낼 수 있을지는, 경찰의 눈에 이 사건이 얼마나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가에 정비례할 것이네.”

나는 말문이 막힌 채, 말을 내뱉은 상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네.” 그는 우리 아파트의 문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을 직접 저지른 범인은 아닐지 몰라도, 사건의 실행 과정에 어느 정도 연루되었을 법한 인물을 기다리는 중이라네. 저질러진 범죄 가운데 가장 잔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결백할 가능성이 높지. 내 추측이 맞기를 바랄 뿐이네. 이 가설이 맞아야만 이 수수께끼 전체를 풀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매 순간 이 방 안으로

그 남자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네. 물론 그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올 확률이 훨씬 높네. 만약 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붙잡아 두어야 하네. 여기 권총이 있으니, 상황이 닥치면 우리 둘 다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세.”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혹은 들은 말을 믿지도 못한 채 권총을 집어 들었다. 그사이 뒤편은 마치 혼잣말을 하듯 말을 이어갔다. 그가 이럴 때면 보여주는 추상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나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음에도 마치 아주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듯한 특유의 억양을 띠고 있었다. 초점 없는 그의 눈은 오직 벽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계단 위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들었던 목소리는, 사실 그 여인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사실 덕분에, 노부인이 딸을 먼저 죽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제가 이 점을 우선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논리적인 순서 때문입니다. 우선 레스파네 부인의 완력으로는 딸의 시신을 발견 당시처럼 굴뚝 안으로 밀어넣는 일 따위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부인 본인의 몸에 남은 상처의 양상을 보더라도 자살이라는 가설은 전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제삼자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며, 계단 위에서 들렸던 다툼 소리는 바로 그 제삼자의 목소리였던 셈입니다. 이제 저는 그 목소리에 관한 증언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그 증언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혹시 그 증언에서 유별나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까?”

나는 목격자들 모두가 그 거친 목소리를 프랑스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날카로운 목소리, 혹은 한 목격자가 표현한 대로 그 쉿소리 같은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갈린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것이 바로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뉘팽이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증거의 내용이 아니라, 그 증거가 지닌 특이점입니다. 당신은 눈에 띄는 특징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군요. 하지만 분명히 관찰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언급했듯이 목격자들은 거친 목소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에 관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이한 점은 목격자들이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인, 영국인, 스페인인, 네덜란드인, 그리고 프랑스인이 그 목소리를 묘사하려 했을 때, 모두가 그 목소리를 ‘외국인의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목격자들은 저마다 그 목소리가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언어를 쓰는 특정 국가 사람의 목소리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말했습니다. 프랑스인은 그 목소리가 스페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페인어를 알았더라면 몇 마디 단어는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인은 프랑스인의 목소리였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보면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해 통역사를 통해 심문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인은 독일인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며, ‘독일어를 모른다’고 합니다. 스페인인은 영국인의 목소리라고 ‘확신’하지만, 영어를 전혀 모르기에 오로지 ‘억양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탈리아인은 러시아인의 목소리라고 믿고 있

지만, ‘러시아 태생과 대화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 프랑스인은 첫 번째 프랑스인과 의견이 달랐는데, 그 목소리가 이탈리아인의 것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 언어를 알지 못했기에’ 스페인인처럼 오로지 ‘억양만으로 확신’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증언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 그 목소리가 대체 얼마나 기이하고 특이했겠습니까! 유럽의 다섯 주요 민족이 그 ‘음색’만 듣고도 전혀 친숙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가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겠지요. 파리에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이 흔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추론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지금부터 세 가지 점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우선, 한 목격자는 그 목소리가 날카롭다기보다는 ‘거칠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두 명의 목격자는 그 목소리가 ‘빠르고 불규칙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격자도 단어라고 부를 만한 것이나 단어와 유사한 소리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당신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뉘팡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증언, 즉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관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도출한 타당한 추론만으로 충분히 의심을 품을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모든 과정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제가 ‘타당한 추론’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제 의도를 온전히 다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추론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방식이며, 그 추론을 거치면 의심은 필연적으로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의심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제가 그 방을 조사할 때, 이 의심이 제 탐색의 명확한 형태와 방향을 결정지을 만큼 충분히 강력했다는 점만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범인들이 빠져나간 통로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는 않으니,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레스파네 부인과 카미유 레스파네 양을 죽인 것은 유령이 아닙니다. 범인은 실재하는 인간이었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갔을까요?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할 추론 방식은 단 하나뿐이며, 그 방식을 따르면 반드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능한 탈출 경로를 하나씩 검토해 봅시다.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왔을 때, 살인범들은 카미유 레스파네 양이 발견된 방에 있었거나, 적어도 그 옆방에는 반드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방에서 연결된 통로만을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미 사방의 바닥과 천장, 그리고 벽의 석조 구조물까지 낱알이 파헤쳤습니다. 경찰의 감시를 피해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 따위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경찰의 눈을 온전히 믿지 않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역시 비밀 통로는 없었습니다. 방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두 문은 모두 안에서 열쇠가 잠긴 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굴뚝을 살펴봅시다. 굴뚝은 벽난로 위쪽 8~10피트 정도 구간은 일반적인 너비였지만, 전체 구간을 통틀어 보면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조차 통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방법들로 탈출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남은 곳은 창문뿐입니다. 앞방 창문을 통해 나갔다면 거리의 인파에게 들키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인들은 반드시 뒷방 창문을 통해 나갔어야만 합니다.

이토록 명백한 결론에 도달했을 때, 추론가로서 우리가 할 일은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이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방 안에는 창문이 두 개 있었다. 하나는 가구에 가로막히지 않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다른 창문은 육중한 침대 머리맡이 창문에 바짝 붙어 있는 탓에 아랫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먼저 언급한 창문은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창문을 열어보려 온 힘을 다해 밀어 올렸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창틀 왼쪽에는 커다란 송곳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는 머리 부분까지 거의 다 들어간 아주 굵은 못 하나가 박혀 있었다. 다른 창문을 조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곳에도 비슷한 못이 똑같은 방식으로 박혀 있었으며, 이 창문 역시 힘껏 밀어 올려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 창문들을 통해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굳이 못을 뽑아 창문을 열어보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 조사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방금 말한 이유 때문이다. 눈앞에 놓인 이 사건에서,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 내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사후적인 추론을 이어 나갔다. 범인들은 분명 이 창문 중 하나를 통해 도주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들은, 창문이 잠긴 채 발견된 것과 달리, 안에서 창틀을 다시 잠글 수는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너무나 명백했기에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멈춰 버렸다. 그러나 창틀은 분명히 잠겨 있었다. 그렇다면 창틀은 스스로 잠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이 결론을 피할 길은 없었다.

나는 가로막는 것이 없는 창가로 다가가, 다소 힘을 들여 못을 뽑아 낸 뒤 창문을 들어 올리려 시도했다. 예상했던 대로 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창문 안에 숨겨진 스프링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 가설이 입증되자, 못에 얹힌 정황이 여전히 미스터리하긴 했지만 적어도 내 전제만큼은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살살이 뒤진 끝에 곧 숨겨진 스프링을 찾아낼 수 있었다. 나는 스프링을 눌러 보았다. 발견의 기쁨을 만끽하며, 나는 더는 창문을 들어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나는 못을 제자리에 끼워 넣고는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누군가 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서 창을 닫았다면 스프링이 맞물릴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못까지 다시 박아 넣을 수는 없다. 결론은 명확했

다. 조사의 범위는 다시 한번 좁혀졌다. 범인들은 반드시 다른 쪽 창문을 통해 도망쳤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두 창문의 창틀 스프링은 아마도 동일한 구조일 것이므로, 못 자체나 혹은 못을 고정하는 방식에서 반드시 차이가 발견되어야만 한다.

나는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라서서 머리맡 판자 너머로 두 번째 창문을 세밀하게 살폈다. 판자 뒤로 손을 집어넣어 살펴보니, 예상대로 옆에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스프링이 금방 만져졌다. 이제 나는 못을 확인했다. 못은 다른 쪽 못만큼이나 튼튼했고, 겉보기에는 박혀 있는 방식도 같아 보였다. 못은 머리 부분까지 거의 다 박혀 있었다.

“내가 갈피를 못 잡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내가 행한 귀납적 추론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스포츠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나는 단 한 번도 ‘실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순간도 단서의 냄새를 놓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추리의 사슬 중 어느 고리도 끊어지거나 결함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밀의 끝을 추적해 그 최종적인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못’이었습니다.

그 못은 다른 창문에 박힌 못과 모든 면에서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단서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못에 분명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못을 건드리자, 못 머리와 약 4분의 1인치 정도의 몸통 부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나머지 몸통은 못이 부러진 자리인 송곳 구멍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러진 단면에는 녹이 슬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에 부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망치로 내리쳐서 부러진 듯했는데, 그 충격으로 못 머리 부분이 아래쪽 창틀 윗부분에 부분적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방금 빼낸 못 머리 부분을 원래 있던 홈에 조심스럽게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자 틈새가 보이지 않게 되면서, 마치 멀쩡한 못처럼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스프링을 누르고 창틀을 몇 인치 정도 살짝 들어 올리자, 못 머리도 창틀에 단단히 고정된 채 함께 올라갔습니다. 다시 창문을 닫으니, 못 전체가 마치 온전한 상태인 것처럼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수께끼는 풀렸다. 살인범은 침대가 보이는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범인이 빠져나가면서 창문이 저절로 닫혔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닫은 모양이다. 창문은 닫히면서 스프링 장치에 걸려 잠겼다. 경찰은 이 스프링을 못으로 착각했지만, 사실은 스프링이 창문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의 조사는 불필요해 보였다.

“다음 문제는 침입 경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신과 함께 건물 주변을 걸으며 이미 확신을 얻었습니다. 문제의 창문에서 약 5피트 반 정도 떨어진 곳에 피뢰침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피뢰침만으로는 창문에

손을 대는 것조차 불가능하며, 창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4층의 덧창이 파리 목수들이 ‘페라드(ferrades)’라고 부르는 특이한 형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방식이지만, 리옹이나 보르도의 아주 오래된 저택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지요. 이 덧창은 일반적인 문(접이식 문이 아닌 외짝 문)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하단 절반이 격자무늬로 되어 있어 손으로 움켜쥐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번 사건의 덧창은 폭이 무려 3피트 반이나 됩니다. 우리가 집 뒷면에서 보았을 때, 두 덧창은 모두 절반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즉, 벽과 직각을 이루며 서 있었던 것이지요.

경찰도 저처럼 건물의 뒷면을 조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이 페라드의 폭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테니(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폭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적어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쪽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을 한 번 내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대충 훑어보고 지나쳤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있는 창문의 덧창을 벽 쪽으로 완전히 젖히면, 피뢰침으로부터 2피트 거리까지 닿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아주 이례적인 기력과 용기를 발휘한다면, 피뢰침을 타고 창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백합니다. 덧창을 완전히 펼쳤다고 가정하면, 범인은 2피트 반 거리까지 손을 뻗어 격자무늬를 꼭 움켜쥘 수 있습니다. 그다음 피뢰침을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발을 벽에 단단히 디디고 힘차게 뛰어오르면, 덧창을 휘둘러 닫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창문이 열려 있었다면, 그 반동을 이용해 방 안으로 몸을 날려 들어가는 것조차 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토록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성공시키려면 아주 이례적일 만큼의 민첩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저는 이 일이 이론적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적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그 민첩함이 얼마나 기이하고, 거의 초자연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비범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투입된 활동의 규모를 온전히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편이 낫다고 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려는 일은, 방금 언급한 그 ‘매우 이례적인’ 활동과, 방금 묘사한 그 ‘매우 기이하고’ 날카로우며 ‘불규칙한’ 목소리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란히 맞추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어느 나라 말인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발음의 마디조차 전혀 구분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풋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무언가 깨달을 듯 말 듯 하면서도 끝내 이해하

지 못하는 상태, 마치 무언가 기억날 듯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과 같았다. 내 친구는 말을 이어 나갔다.

“보시다시피,” 그가 말했다. “나는 질문의 초점을 나가는 방식에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옮겼습니다. 두 과정 모두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달하려 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방 안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현장의 모습들을 살펴봅시다. 서랍이 뒤져졌다고들 하지만, 정작 옷가지들은 여전히 서랍 안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결론은 터무니없습니다. 그저 짐작일 뿐이며, 아주 어리석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서랍에서 발견된 옷가지들이 원래 그 서랍에 들어있던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레스파네 부인과 그녀의 딸은 매우 은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지도 않았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옷을 자주 갈아입을 일도 없었지요. 발견된 옷들은 적어도 이 부녀가 소유했을 법한 옷들 중에서는 꽤 질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만약 도둑이 무언가를 훔쳤다면, 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왜 전부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왜 굳이 리넨 뽕치를 챙기느라 금화 4,000프랑을 버려두고 갔단 말입니까? 금화는 버려져 있었습니다. 은행가 미노 씨가 언급한 금액의 거의 전부가 자루에 담긴 채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경찰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그 어리석은 ‘범행 동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집 문앞에서 돈이 전달되었다는 증거 때문에 경찰이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돈이 전달된 지 사흘 만에 살인이 일어났다는 이 사건의 우연은, 우리 삶에서 매시간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잠깐의 주의조차

끌지 못한 채 우리 곁을 지나가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연이란 확률 이론을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인류 연구의 가장 영광스러운 성과들이 확률 이론을 통해 가장 빛나는 증명을 얻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만약 금화가 사라졌다면, 사흘 전에 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 그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범행 동기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실제 상황을 놓고 볼 때, 만약 금화를 범행 동기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범인이 금화와 자신의 동기를 한꺼번에 내팽개칠 정도로 갈팡질팡하는 바보라고 상상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강조해 온 점들을 다시 한번 차분히 되짚어 봅시다. 그 기이한 목소리, 상식을 벗어난 민첩함, 그리고 이토록 잔혹하고 특이한 살인 사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범행 동기 말입니다. 이제 살해 방식 자체를 살펴봅시다. 여기 한 여성이 맨손의 힘에 눌러 목이 졸려 죽었고, 머리부터 굴뚝 안으로 처박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범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시신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지요.

시신을 굴뚝 안으로 밀어 넣은 방식은 분명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괴합니다. 범인이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행동 양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또한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시신을 그 좁은 구멍 안으로 그토록 강하게 밀어 넣을 수 있는 힘이라니요. 나중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겨우 시신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을 발휘했다는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벽난로 근처에는 아주 굵은 회색 머리카락 뭉치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굵은 뭉치들이었죠.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혀 나간 상태였습니다. 머리에서 스무 가닥이나 서른 가닥만 한꺼번에 뽑아내려 해도 얼마나 엄청난 힘이 필요한지는 당신도 잘 알 겁니다. 그 머리카락 뭉치들을 저뿐만 아니라 당신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머리카락의 뿌리 부분은—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만—두피의 살점 조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한 번에 50만 가닥이나 되는 머리카락을 뽑아낼 때 가해진 경이로운 힘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노부인의 목은 단순히 베인 수준이 아니라, 머리가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는 고작 면도날 하나뿐이었습니다. 또한 이 범행이 얼마나 잔혹하고 야만적인지도 주목해 주십시오. 레스파네 부인의 몸에 남은 타박상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뒤마 씨와 그의 유능한 조수 에티엔 씨는 그 상처들이 뭉툰한 물체에 의해 입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두 분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그 뭉툰한 물체는 분명 마당의 돌바닥이었을 겁니다. 피해자가 침대가 내려다보이는 창문에서 그곳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지금은 이 생각이 아주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경찰은 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창문의 덧창 너비조차 알아채지 못한 이유와 같습니다. 못이 박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은 창문이 열렸을 가능성 자체를 아예 차단해 버린 셈이니까요.”

“만약 이 모든 사실에 더해, 당신이 방 안의 기괴한 난장판을 제대로 되짚어 보았다면, 우리는 이미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한 셈입니다. 경이

로울 정도의 민첩함, 초인적인 힘, 잔혹한 흥포함, 동기 없는 도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기괴함,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귀에는 생소하게 들릴 뿐 어떤 단어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낮은 목소리까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습니까? 제 설명이 당신의 상상력에 어떤 인상을 남겼습니까?”

뒤팡이 질문을 던지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대답했다. “미친놈이 저지른 짓입니다. 근처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광인임이 틀림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가 대답했다. “당신의 생각도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광인이 아무리 격렬하게 발작을 일으킨다 해도, 계단에서 들렸던 그 기묘한 목소리와 일치하는 경우는 결코 없었습니다. 광인도 결국 어느 나라 사람이기에, 그들의 말이 아무리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도 음절의 구성만큼은 분명한 체계를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게다가 광인의 머리카락이 지금 내 손에 든 것과 같을 리도 없습니다. 나는 레스파네 부인의 짝 쥐어진 손가락 사이에서 이 작은 머리카락 뭉치를 뽑아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당신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뒤팡!” 나는 완전히 평정심을 잃은 채 외쳤다. “이 머리카락은 정말 기이하군요. 이건 결코 사람의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 점을 결론짓기 전에, 제가 이 종이에 그려 놓은 작은 스케치를 한번 봐 주십시오. 증언의 한 부분에서는 카미유 레스파네 양의 목에 ‘검은 멍과 손톱에 의한 깊은 자국’이 있다고 기술했고, 뒤마와 에티엔 씨의

증언에서는 ‘손가락 자국이 분명한 일련의 검푸른 반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내 친구는 우리 앞의 탁자 위에 종이를 펼쳐 놓으며 말을 이었다. “손가락이 아주 단단하고 고정된 상태로 움켜쥐고 있다는 느낌을 줄 거야. 손가락이 미끄러진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아. 손가락 하나하나가 처음 움켜쥐었을 때의 그 무시무시한 악력을, 아마 피해자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대로 유지했던 모양이야. 자, 이제 네 손가락 전부를 저 그림에 보이는 자국들에 맞춰서 동시에 한 번 넣어 봐.”

나는 시도해 보았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 그가 말했다. “종이는 평평한 바닥에 펼쳐져 있지만, 사람의 목구멍은 원통형이지 않은가. 여기 목둘레와 비슷한 크기의 나무 막대기가 있네. 이 막대기에 종이를 둘러서 다시 한번 실험해 보게.”

나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명백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나는 말했다. “이것은 인간의 소행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대목을 읽어보게.” 뒤팡이 대답하며 퀴비에의 글을 건넸다.

그것은 동인도 제도의 거대하고 황갈색을 띤 오랑우탄에 대해 해부학적으로 아주 상세히 기록한 묘사였다. 이 포유류가 가진 거대한 체구와 엄청난 힘과 활동성, 야생의 사나움, 그리고 남을 흉내 내는 습성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나는 그 살인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즉시 깨달았다.

“읽기를 마친 뒤 내가 말했다. “손가락 모양에 대한 묘사가 이 그림과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당신이 그려 놓은 자국을 보니, 여기서 언급된 종의 오랑우탄이 아니고서야 이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동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황갈색 털 뭉치 또한 퀴비에가 말한 그 짐승의 것과 성질이 똑같고요. 하지만 이 끔찍한 미스터리의 세부 사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투는 목소리가 두 개나 들렸는데, 그중 하나는 분명히 프랑스인의 목소리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거의 모든 이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내뿔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표현이 하나 있지요. 바로 ‘몽 디외(mon Dieu, 세상에나)!’라는 외침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목격자 중 한 명인 제과점 주인 몬타니는 이 외침을 항의나 항변의 표현이라고 아주 적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마디 말에 이 수수께끼를 완전히 풀 수 있다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즉, 어떤 프랑스인이 이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 참혹한 사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아니, 사실상 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랑우탄이 그에게서 탈출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오랑우탄을 쫓아 방 안까지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뒤이어 벌어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랑우탄을 다시 붙잡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랑우탄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고요.

물론 이런 추측들을 더 밀어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제 지적 능력으로
는 이 추측의 근거가 되는 사유의 깊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
를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신도 없기에, 감히 추측 이상의 무엇
이라고 부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추측이라고 부르고,
추측으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짐작하는 대로 그 프랑스인이 이 잔혹한 범죄와 무관한
결백한 사람이라면, 어젯밤 귀가하는 길에 해운업계 전문지이자 선원
들이 즐겨 읽는 ‘르 몽드(Le Monde)’ 지사에 내놓은 광고가 그를 우리
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가 내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포획됨——월 ——일 이른 아침, 블로뉴 숲에서 보르네오 종의 매
우 크고 황갈색을 띤 오랑우탄 한 마리를 발견함. (이 동물의 주인은
몰타 선박 소속의 선원으로 확인됨.) 동물을 확실히 식별하고, 포획 및
사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면 다시 찾아갈 수 있음. 생제르맹
교외, ——가 ——번지, 3층으로 방문할 것.

“어떻게 그 남자가 선원인지, 그리고 몰타 선박 소속인지 알 수 있었
던 겁니까?” 내가 물었다.

“모릅니다.” 뒤펡이 말했다. “확신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여기 작은
리본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모양이나 기름진 상태를 보니, 선원들이
즐거 하는 긴 머리 땋기 방식에 쓰인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매듭은
선원 외에는 맺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몰타인 특유의 방식이죠. 저

는 피뢰침 아래에서 이 리본을 주웠습니다. 죽은 이들의 물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이 리본을 근거로 내린 제 추측, 즉 그 프랑스인이 몰타 선박에 속한 선원이라는 판단이 틀렸다고 해도, 광고에 적은 내용 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틀렸다면, 그는 그저 제가 어떤 상황에 속아 잘못 알았을 뿐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굳이 따져 물으려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추측이 맞다면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비록 살인 사건에는 결백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프랑스인은, 광고에 답을 하거나 오랑우탄을 요구하는 일을 당연히 망설이게 될 테니까요.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나는 결백하다. 가난한 내 처지에 이 오랑우탄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 자체로 일생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데, 괜한 불안감 때문에 이걸 놓칠 이유가 있나? 오랑우탄은 바로 내 손안에 있다. 게다가 이 짐승은 살육이 벌어진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불로뉴 숲에서 발견되었다. 짐승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누가 의심하겠는가? 경찰이 무능한 것이다. 실마리 하나 찾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설령 경찰이 그 동물을 찾아낸다 해도, 내가 살인 사건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사실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내 정체는 이미 알려져 있다. 광고주는 나를 이 짐승의 주인이라고 지칭했다.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내가 가진 게 분명한 이 귀한 물건을 찾지 않고 피한다면, 오히려 그 동물이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이나 짐승에게 이목을 끄는 건 내 방식이 아니다. 일단 광고에 답해서 오랑우탄을 되찾은 뒤, 이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퐁퐁 숨겨두어야겠다.’”

그때, 계단 위로 발소리가 들려왔다.

“권총을 준비하게.” 뒤펡이 말했다. “하지만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 꺼내거나 발사하지 말게.”

집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방문객은 벨을 누르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 계단을 따라 몇 걸음 올라왔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망설이는 듯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뒤펡이 서둘러 문가로 다가갔을 때, 그가 다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와 우리 방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뒤펡이 쾌활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겉모습만 봐도 분명 선원 같았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하며 근육질인 데다, 얼굴에는 다소 겁 없는 기색이 서려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호감이 안 가는 인상은 아니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은 덤수룩한 구레나룻과 콧수염에 절반 이상 가려져 있었다. 그는 커다란 참나무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무기는 지니지 않은 듯 보였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프랑스식 억양으로 "안녕히 계셨습니까"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 말투는 약간 뇌샤텔 지방의 색채가 섞여 있었으나, 파리 출신임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했다.

“자, 앉게나, 친구.” 뒤펡이 말했다. “오랑우탄 때문에 찾아온 모양이군. 세상에, 그 동물을 가졌다는 게 부러울 지경이라네. 아주 훌륭한 놈이야. 틀림없이 값도 엄청나게 나가겠지. 자네가 보기에 그놈은 몇 살쯤 된 것 같나?”

선원은 마치 건디기 힘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길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고는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확실히 말할 방법은 없지만, 네 살이나 다섯 살은 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기 아이를 데려왔나요?”

“아니요, 그를 계속 데리고 있을 만한 편의 시설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근처인 뒤푸르가에 있는 마구간에 맡겨 두었으니, 내일 아침이면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물건을 확인하고 인수할 준비는 되셨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와 헤어지게 된다면 무척 아쉬울 겁니다.” 뒤푸이 말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토록 번거롭게 해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남자가 말했다. “물론 무리한 부탁이라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짐승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합당한 수준 내에서 반드시 사례하겠습니다.”

“글쎄요.” 내 친구가 대답했다.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디 생 각 좀 해봅시다! 제가 무엇을 받으면 좋을까요? 아, 말씀드리죠. 제 보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파악하고 있는 모르그가 살인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게 넘겨주십시오.”

뒤푸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주 조용히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는 그와 똑같이 조용한 몸짓으로 문을 향해 걸어가더니,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더니, 조금의 동요도 없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선원의 얼굴이 마치 질식할 듯 괴로워하며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 몽둥이를 움켜쥐었으나, 다음 순간 몸을 심하게 떨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단 한 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진심으로 그가 가엾어 견딜 수가 없었다.

“친구여,” 뉘팽이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불필요하게 겁을 먹고 있군. 정말이지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있어. 우리는 당신에게 전혀 해를 끼칠 생각이 없네. 신사로서, 그리고 프랑스인으로서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 하지 않네. 당신이 모르그가에서 벌어진 그 잔혹한 사건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당신이 어느 정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부정해서는 안 되네. 내가 이미 말했듯이, 나는 당신이 꿈도 꾸지 못할 경로를 통해 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네. 상황은 이러네. 당신은 피할 수 있었던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죄를 물을 만한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네. 당신은 충분히 강도질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지. 숨길 것도 없고, 숨겨야 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반면에, 당신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명예로운 의무가 있네. 지금 무고한 사람이 당신이 범인을 지목할 수 있는 바로 그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일세.”

뒤땡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선원은 어느 정도 평정심을 되찾았다. 하지만 처음 보여주었던 그 당당한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맹세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서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제가 아는 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의 절반도 믿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압니다. 당신이 믿어 주시리라 기대한다면 저야말로 정말 바보겠지요. 그래도 저는 결백합니다. 설령 이 일로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겠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요컨대 이러했다. 그는 최근 인도 제도 (archipelago)로 항해를 다녀왔다. 그는 일행 중 한 명으로서 보르네오에 상륙했고, 유람을 위해 내륙으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그는 동행인과 함께 오랑우탄 한 마리를 생포했다. 그런데 동행인이 죽으면서 그 오랑우탄은 온전히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귀국하는 항해 동안 포획한 짐승이 다루기 힘들 정도로 사납게 구는 바람에 큰 고생을 치렀지만, 그는 결국 파리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 오랑우탄을 안전하게 들여놓는데 성공했다. 다만 이웃들의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배 안에서 나무 파편에 찢린 발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는 오랑우탄을 외부와 철저히 격리해 두었다. 그의 최종 목적은 이 오랑우탄을 파는 것이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 아니 차라리 그날 아침이었을 것이다. 선원들의 유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자신의 침실을 점령한 짐승과 마주했다. 짐승은 옆방의 벽장 안에서 나와 침실로 침입한 상태였

다. 벽장 문은 굳게 잠겨 있었기에, 그 안에 짐승을 가두어 두었다고 믿고 있었다. 짐승은 면도칼을 손에 든 채 거품을 잔뜩 묻히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마치 면도하는 시늉을 하려는 듯했다. 짐승은 분명 그동안 벽장 열쇠구멍을 통해 주인이 면도하는 모습을 훑쳐보았음이 틀림 없었다.

그토록 사나운 짐승이 면도칼이라는 위험한 무기까지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자, 남자는 공포에 질려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그는 짐승이 아무리 사납게 날뛰 때라도 채찍을 휘둘러 진정시키는 데 익숙했다. 남자는 결국 채찍을 집어 들었다. 채찍을 보자마자 오랑우탄은 즉시 방 문을 박차고 나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러고는 불행히도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거리로 뛰어내려 갔다.

프랑스인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 뒤를 쫓았다. 오랑우탄은 손에 면도칼을 쥔 채, 추격자가 거의 다 따라잡을 때까지 가끔 뒤를 돌아보며 뒤쫓는 이를 향해 몸짓을 해댔다. 그러다 다시금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추격전은 한참 동안 이어졌다. 새벽 세 시가 다 된 시각이라 거리는 몹시 고요했다.

도망치던 오랑우탄은 모르그가 뒷골목을 지나던 중, 레스파네 부인 저택 4층에 있는 그녀의 방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보고 발길을 멈췄다. 오랑우탄은 건물로 달려가 피뢰침을 붙잡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민첩하게 기어올랐다. 이어 벽 쪽으로 완전히 젖혀져 있던 창문 덧창을 붙잡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침대 머리맡으로 곧장 뛰어올랐다.

이 모든 과정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오랑우탄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덧창을 다시 발로 차서 열어젖혔다.

그사이 선원은 기쁨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다. 짐승이 함정 안으로 뛰어든 이상, 피뢰침을 타고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면 다시 붙잡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짐승이 집 안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지 몰라 불안하기도 했다. 이런 걱정 때문이라도 그는 도망친 짐승을 반드시 뒤쫓아야만 했다.

피뢰침을 오르는 일은 특히 선원에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왼쪽 멀리 있는 창문에 다다랐을 때, 그의 행보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을 내밀어 방 안을 살짝 엿보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방 안을 본 순간, 그는 공포에 질려 잡고 있던 곳에서 손을 놓칠 뻔했다.

바로 그때, 모르그가의 주민들을 잠에서 깨울 만큼 끔찍한 비명 소리가 밤공기를 가르고 터져 나왔다. 잠옷 차림의 레스파네 부인과 카미유 레스파네 양은 방 한가운데로 끌어다 놓은 철제 금고에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던 듯했다. 금고는 열려 있었고, 그 내용물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희생자들은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또한 짐승이 침입한 시점과 비명이 터져 나온 시점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면, 짐승의 등장을 즉시 알아차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덜컥거리며 닫힌 창문 덧창 소리는 아마도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선원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거대한 짐승은 레스파네 부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부인이 머리를 빗고 있던 터라 머리카락은 풀

어해쳐진 상태였다. 짐승은 마치 이발사가 움직이듯 부인의 얼굴 근처에서 면도칼을 휘둘러댔다. 딸은 혼절하여 미동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동안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혀 나갔고, 이 소란은 평온했을지도 모를 오랑우탄의 목적을 분노로 바꾸어 놓았다. 짐승은 근육질의 팔을 단번에 휘둘러 부인의 머리를 몸통에서 거의 잘라낼 듯이 내리쳤다. 피를 보자 짐승의 분노는 광기로 치달았다. 짐승은 이를 갈며 눈을 번뜩이더니, 소녀의 몸 위로 달려들어 무시무시한 발톱을 목에 박아 넣었다. 그리고 소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상태로 움켜쥐고 있었다.

그 순간, 짐승의 방황하며 거친 시선이 침대 머리맡을 향했다. 그곳에는 공포로 굳어버린 주인의 얼굴이 간신히 보였다. 분명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여전히 떠올리고 있었을 짐승의 분노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 짐승은 피비린내 나는 범행을 숨기려는 듯 초조하게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움직일 때마다 가구를 넘어뜨려 부수었고, 침대 틀에서 매트리스를 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짐승은 먼저 딸의 시신을 붙잡아 굴뚝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발견된 모습이었다. 그러고는 레스파네 부인의 시신을 붙잡아 곧장 창밖으로 내던졌다.

오랑우탄이 참혹하게 훼손된 사체를 짊어진 채 창가로 다가오자, 선원은 기겁하여 피뢰침 쪽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러고는 기어 내려간다고 보다 미끄러지듯 피뢰침을 타고 내려와 곧장 집으로 도망쳤다. 살육이 불러올 후폭풍이 두려웠던 것이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오랑우탄의 행방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계단에 있던 사람들이 들은 소리는

프랑스인이 내뱉는 경악과 공포의 비명, 그리고 짐승이 내뱉는 악마 같은 울음소리가 뒤섞인 소리였다.

덧붙일 말은 거의 없다. 오랑우탄은 문이 부서지기 직전, 피뢰침을 타고 방을 빠져나간 것이 분명하다. 창문을 통과하면서 창문도 닫았을 것이다. 그 뒤 오랑우탄은 주인에게 붙잡혔고, 주인은 그 동물을 '자르 땡 데 플랑트'에 아주 비싼 값에 팔아넘겼다. 우리가 경찰청 국에 가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자(뒤땡의 논평도 곁들여서), 르봉은 즉시 석방되었다. 경찰청장은 내 친구 뒤땡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었으나, 사건이 이렇게 흘러간 것에 대한 실망감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일이나 신경 쓰는 게 어떻겠냐며 냉소적인 농담을 한 두 마디 던지기도 했다.

“그가 말하게 두게.” 굳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뒤땡이 말했다. “마음껏 떠들게 두라고. 그래야 양심의 가책도 덜어낼 테니. 나는 그가 자신의 본거지에서 패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네. 그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건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야. 사실 우리 친구인 경찰청장은 영악하기는 해도 깊이가 없거든. 그의 지혜에는 알맹이가 없네. 마치 라베르나 여신의 초상화처럼 머리만 덩그러니 있거나, 기껏해야 대구 그림처럼 머리와 어깨만 있는 격이지. 하지만 그래도 그는 좋은 사람이라네. 특히 그가 교묘한 말재주로 기지를 발휘해 명성을 쌓은 방식은 꽤 마음에 들어. ‘있는 사실을 부정하고, 없는 사실을 설명해내는’ 그 수법 말일세.”

(*) 루소 — 신엘로이즈.